



# “일본엔 가위바위보도 안 져”... 축구, 내일 모든 것 쏟는다

한·일, 아시안게임 첫 결승전... 금메달 놓고 양보 없는 한판  
체력 부담 태극전사들 피로회복 훈련 집중...황의조 “반드시 이긴다”

	<b>2018 아시안게임 성적</b> 5승 1패 (9득점 2실점) / 5승 1패 (17득점 6실점)	
	<b>FIFA 랭킹</b> 55위 / 57위	
	<b>아시안게임 한일전 전적</b> 1승 6패 / 6승 1패	
	<b>최근 대결</b> 2014년 (인천) 8강전에서 한국이 1:0 승리	
<b>역대 아시안게임 우승 횟수</b>		<b>와일드카드 3명</b> (손흥민·황의조·조현우)
1회 (2010년)	4회 (1970, 1978, 1986, 2014)	

“저희끼리 일본에 지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한·일전은 언제나 긴장감이 넘친다. ‘일본에는 가위바위보도 패하면 안 된다’는 말이 한일전의 치열함을 설명한다.  
운명의 한·일전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성사됐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은 29일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각각 베트남(3-1 승)과 아랍에미리트(1-0 승)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한국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8시 30분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운명의 맞대결로 금메달을 다툰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일본과 8강에서 만나 1-0으로 승리한 뒤 결승에서 복판을 제압했다.  
이에 맞서는 일본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우승팀으로, 이번 대회에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대비해 와일드카드 없이 21세 이하 선수로만 구성해 결승까지 진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운명의 한일전”이 성사되면서 태극전사들에게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됐다.

대회 2연패와 병역 혜택의 달콤한 열매뿐만 아니라 일본과 라이벌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이다.  
베트남과 준결승전이 끝난 뒤 수비수 김민재(전북)는 일본과 결승 대결이 예상된다며 “이미 선수들도 일본과 결승전을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이 결승에 올라와서 진다면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농담을 했을 정도다. 져서는 안 되는 상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 9골로 득점왕을 눈앞에 둔 황의조(강바 오사카)도 일본전 승리를 자신하고 나섰다.  
황의조는 “지금 전력이라면 일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결승전까지 잘 준비하고 우리 플레이만 잘 해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팀에는 황의조와 강바 오사카에서 한술밥을 먹는 수비수 하쓰세 료(21)가 뛰고 있다.  
하쓰세는 수비 자원으로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해 좌우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A대표팀에도 뽑히면서 세트피스 전문 키커로 인정 받는 선수다.  
황의조는 “아시안게임에 오기 전에 팀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팀 동료들이 하쓰세에게 ‘결승에서 만나면 황의조에게 양보하라’는 농담까지 했다”고 웃음을 지었다.  
한편 태극전사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렸다.  
한국은 지난 27일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난타전을 벌이면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4-3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하루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곧바로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전력 비교

**일본 vs 한국**  
9월 1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라트 치바봉 파칸사리 스타디움

<b>16강 vs 말레이시아</b> 1:0 승	<b>8강 vs 사우디</b> 2:1 승	<b>4강 vs UAE</b> 1:0 승	<b>8강 vs 우즈베키스탄</b> 4:3 승
------------------------------	---------------------------	---------------------------	------------------------------

**다득점 선수**  
**이와사키 유토**  
1998.6.11 / 172cm, 69kg / 고토상가 FC (FW 공격수)

**이번 대회 득점**  
4골

**득점왕 후보**  
**황의조**  
1992.8.28 / 184cm, 73kg / 강바 오사카 (FW 공격수)

**이번 대회 득점**  
9골

**감독**  
**모리야스 하지메** (50세)  
2018 ~ 일본 U-23 청소년 대표팀 감독  
2012 ~ 2017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 감독  
2010 ~ 2011 알비렉스 니가타(일본) 헤드코치  
2007 ~ 2009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 코치

**감독**  
**김학범** (58세)  
2018.3월 ~ U-23 청소년 대표팀 감독  
2017.8 ~ 2017.11 광주 FC 감독  
2014.9 ~ 2016.9 성남 FC 감독  
2014.7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기술위원

4강전에 나섰던 터라 태극전사들의 피로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일본은 27일 8강전에서 연장 승부를 치르지 않았고, 4강전 역시 연장전 없이 승리를 따내 체력에서는 한국보다 나은 상태다.  
이 때문에 김학범 감독은 지친 선수들이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도록 30일 훈련을 아끼고 이날 숙소에서 치르며 회복에 집중했다.

## 金 보인다



30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라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슈퍼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5-1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마운드 위에서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구, 일본에 5-1 승리... 오늘 중국과 슈퍼라운드 2차전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결승 진출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겐라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슈퍼라운드 1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5-1 승리를 거뒀다.  
예선 첫 경기에서 대만에 1-2로 지면서 B조 2위로 슈퍼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은 A조 1위인 일본을 꺾으면서 결승행에 청신호를 켰다. 예선 성적이 반영되는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이 1승, 한국은 1패를 가지고 시작한 만큼 이번 승리로 두 팀은 1승 1패 동률을 이뤘다.

지난 28일 홍콩과의 경기에서 월드게임 승에 실패했던 한국의 방망이는 초반에도 무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격수 김하성(넥센)이 3회초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하성을 시작으로 박병호(넥센)와 황재균(kt)도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한일전’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특히 교체 선수로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황재균은 3경기 연속 홈런으로 한국의 구세주가 됐다.  
앞선 홍콩전에서 머리에 공을 맞고 교체됐던 KIA 안치홍도 5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선발로 나온 넥센 최원태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뒤, 팔꿈치 통증으로 일찍 물러나면서 이용찬(두산)이 3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졌다. 3-4-5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이용찬이 6회 2사까지 책임진 뒤 1실점을 하고 내려왔다.  
이후 삼성 최중연과 두산 함덕주가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5-1 승리를 완성했다.  
일본전 승리로 한숨을 돌린 한국은 31일 오후 4시 중국과 슈퍼라운드 2차전을 벌인다.  
조별리그와 슈퍼라운드 성적 합산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1-2위 두 팀은 9월 1일 오후 6시 금메달 결정전을 갖는다. 3-4위 결정전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코리아’의 힘

### 여자농구 단일팀, 대만 89-66 꺾고 결승 진출

남북 여자농구 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을 합작하며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단일팀은 30일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대만에 89-66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구성된 남북 단일팀은 카누 용선 남자 500m의 사상 첫 금메달과 용선 여자 200m·남자 1,000m의 동메달에 이어 네 번째 메달을 확보했다.  
단일팀은 중국-일본 준결승전의 승자와 1일 오후 8시(한국시간)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단일팀은 경기 초반부터 임영희와 강이슬의 중장거리포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다.  
로숙영과 박혜진의 3점포도 터지면서 1쿼터 5분 5초 전 18-9로 벌렸다.  
2쿼터 시작 2분 2초 만에 대들보 박지수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출전한 한국은 외곽 수비에서 허점

을 보여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다.  
3점 슛 두 개를 연이어 내줘 6분 16초를 남기고 35-30으로 따라잡혔고, 3분 30초 전엔 평준진의 레이업으로 35-33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후 단일팀은 만인시 임영희의 돌파를 시작으로 박혜진의 빠른 공격을 앞세워 전반 종료 1분 54초 전 43-33으로 달아나 한숨을 돌렸다. 종료 14초 전엔 로숙영이 3점포도 50-35를 만들었다.  
후반 들어 단일팀은 박지수가 든든하게 버티며 골 밑을 장악하고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며 5분 넘게 대만을 무득점으로 막고 20점 차 밑에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72-47로 앞선 채 맞이한 4쿼터엔 임영희, 로숙영 등 주전 대부분을 벤치에 앉혀 결승전을 대비하면서도 여유로운 승리를 챙겼다.

/연합뉴스

## 유도 조구함, 리우恨 풀까

### 오늘 男 100kg 급 출전... 여자 축구, 대만과 동메달 결정전

유도 남자 100kg급 조구함(26·수원시청)과 광동한(26·하이원)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2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한풀이 에 나선다.  
조구함은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유도 남자 100kg급 경기에 출전한다.  
조구함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안고 출전을 강행했지만, 16강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몸 상태도 좋다.  
조구함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도 이번 대회 금빛으로 털어내고자 한다.  
광동한은 리우올림픽 준결승에서 바를람 리파르 텔리아니(조지아)에게 패했다. 3위에 올라 올림픽 메달을 손에 넣었지만, 금메달에 대한 미련은 지울 수 없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향한 갈증을 풀 기회다.  
한국 여자축구는 3연속 메달 획득을 위해 다시 된다.  
한국은 28일 일본과의 4강전에서 1-2로 아쉽게

패했다. 여자축구 첫 결승 진출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3회 연속 메달 획득의 목표는 남아 있다.  
한국 여자축구는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에서 3위를 차지했다. 31일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을 꺾으면 이번 대회에서도 3위에 오른다.  
카타르에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 남자 핸드볼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다.  
마침 상대는 숙적 일본이다. 한국은 예선에서 일본과 한 차례 만나 26-26으로 비겼다. 이날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승부를 내야 한다.  
남북 여자 복서들은 자카르타에서 힘 대결을 한다. 라이트급의 오연지(28·인천시청)는 준결승에서 북한의 최혜송과 맞붙는다.  
한국 여자복서의 간판이 세계 최정상급의 북한 복서와 맞붙는 구도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은 31일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은 ‘셋별’ 정혜림(19·통영시청)과 2010년 광저우에서 한국 트라이애슬론 사상 첫 아시안게임 메달(동메달)을 획득한 ‘전설’ 장운정(30·경주시청)이 여자부 개인전에 나서 입상을 노린다.

/연합뉴스